

# 금향로가 차기까지

February  
2020

## 발행인 단신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에스겔 37:7-10) 3

## 파트너 칼럼

ACTS를 꿈꾸는 아랍 교회연합(Network of Arabic Churches in Turkey) 6

## 선교지에서 온 편지

말라티아 교회에서 온 편지 8

## 안나의 골방

성령과 하나된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날 때 10

## 특별기고

비거주 선교사와 현지인 훈련 12

## Mission Frontiers

자상대명령에 대한 대혼란 16

## 터키는 지금

에르도안, 리비아 통치를 위한 라이벌로 터기도 뛰어 들 것을 시사 21

## 중동지역의 오늘

하마스, 32년 후 25

시리아에 희망의 빛 다시 불 붙여 28



통권 114호  
2020년 2월



Silk Wave Mission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이은옥, 장영미, 김은현, 김룻  
디자인: 민은경  
번역: 손나래, 한국번역팀

SWM 선교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e-mail: info@silkwavemission.com

SWM 선교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안길 33 1층  
Tel: 010-2100-4237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SWM 리더십 위에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과 연합의 영을 허락하사 4월-5월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4월 3일 - 5월 12일: 터키 교회 리더들과 만남, 터키 지방 교회 방문, 아르메니아 선교학교 강의, 비전트립, 킹덤아웃리치, 뷰육아다 사역, 터키어 아랍어 페르시아어권 CP 수양회, 새 CP 후보 인터뷰, 터키교회 난민교회 대상 BAM 세미나 등
- 천지만물 모든 것을 진동하시는 (학 2:6-7) 하나님께서 계속 열방을 흔드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모으시고, 개인, 가정과 교회를 흔드셔서 우리 모두 깨어나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게 하소서!
- 모든 교회 개척자 (CP)들의 삶과 가정과 사역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그들이 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셔서 복음의 순수함과 열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속히 증거되게 하소서! 교회가 없는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시대 주님의 교회들이 눈을 들어 희게 된 추수밭을 보게 하소서!
- 성경의 예언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요엘 2장), 이스마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사60장), 이사야 19장의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 (시122:6)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겔 37:1-14)를 속히 일으키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진심으로 회개하는(대하 7:14) 영을 부으소서!
-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 각자와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주님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벧전 4:7),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금항로가 차기까지

## Founder's Note

발행인 단신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에스겔 37:7-10)

1904년 웨일즈에서 시작한 기도의 불길이 영국, 전 유럽과 세계, 그리고 1907년 평양으로 번져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1910년 에딘버러에서 근대 최초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복음화를 이 세대에 (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라는 주제로 진행되었고 모든 교회가 연합하고 참여하도록 강력하게 도전했습니다.



<1904-1905, 웨일즈 대부흥>



주제 강연을 맡은 YMCA 창설자 존 모트(John R. Mott)는 다음과 같이 나눴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이 살아 있는 동안 전 세계의 복음화는 가능합니다. 함께 일어나 십시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 세계 전체의 복음화는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 대륙의 선교만 끝나면 전 세계는 완전 복음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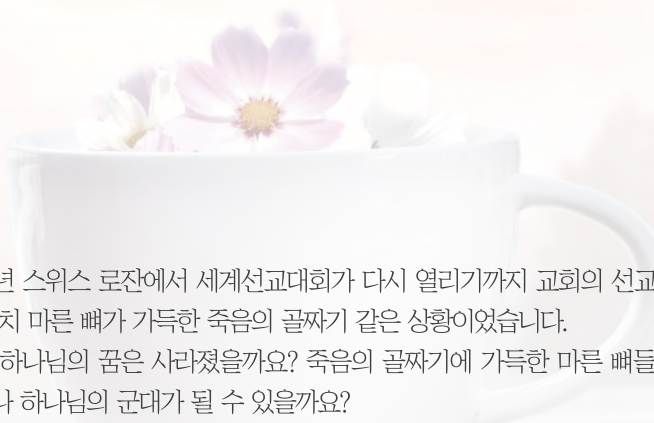


<1910년 근대 최초 선교대회, 에딘버러>



<YMCA 창설자 존 모트>

이후 세계의 교회들과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에 참여하게 되고 1915년 “세계선교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 젊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에딘버러에서 소리 높여 외쳤던 "우리 세대에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라는 꿈은 불과 4년 만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선교에 헌신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럽의 전쟁터로 나갔고, 영국/프랑스와 독일의 젊은이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죽이면서 선교의 꿈은 전쟁 가운데 묻혀 사라져버렸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가운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선교대회가 다시 열리기까지 교회의 선교 사명은 사라지고 마치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꿈은 사라졌을까요? 죽음의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내가 명을 좇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겔 37:7-8)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은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있는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가게 하는 원리를 위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첫째는 연합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연합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됨’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도록 분열과 분리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교회, 나라, 민족 가운데 사탄과 악한 영들은 연합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갈라놓습니다. 그 어떤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싸워야 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 판단과 정죄를 가지고 서로를 대적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연합의 의미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진 은사, 개성이 다른데 하나로 통일해야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배경과 생각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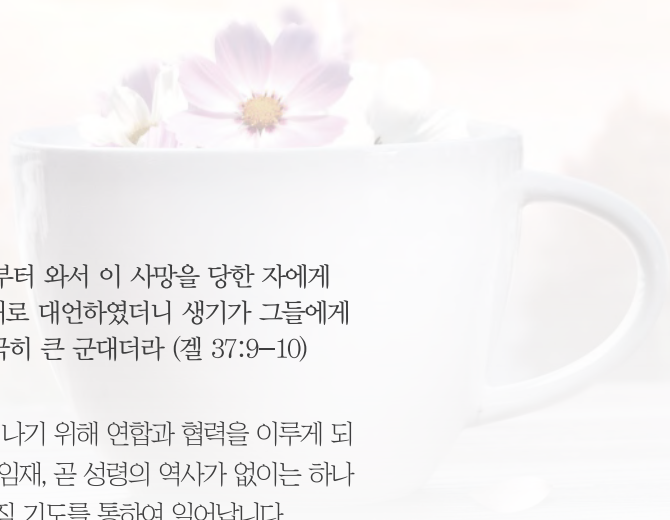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빌1:27)

협력의 단어는 로마 군인들이 싸우기 위해 함께 정렬을 맞추어 서로의 띠를 엮어 굳건하게 단합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비록 생각과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서로가 협력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 둘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 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겔 37:9-10)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 위해 연합과 협력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 곧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보기도는 가장 최선의 공격이자 방어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 사역은 우리 성도들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중보기도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1974년 스위스 로잔 세계선교대회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며 세계선교에 참여할 것을 도전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선교사들의 숫자는 100명도 되지 않았고 세계선교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폭발적인 교회 성장과 더불어 선교에 헌신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 40년간 한국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의 숫자가 현재 약 30,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선교를 위해 한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그 민족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 민족 한 국가를 사용하실 때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18, 19세기 영국과 유럽 국가들을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사용하셨고 20세기 미국을 들어 사용하셨으며 후반에는 한국 교회들, 21세기는 제 3 세계 국가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 민족과 국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열방을 향해 나누지 않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한다면 축복의 촛대는 옮겨갈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 투르크 민족, 페르시아 민족, 쿠르드 민족, 아랍 민족, 아르메니아, 이집트 가운데 이슬람권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군대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군대〉



## Partner Column

### 파트너 칼럼

#### 안바울 사역자

NACT 코디

# ACTS를 꿈꾸는 아랍 교회연합 (Network of Arabic Churches in Turkey)

## 1. 2000년 전의 ACTS(사도행전)와 NACT(새로운 사도행전)

터키 남부 하타이 안타키야 도시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난 곳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는 역할을 한 중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후,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 지난 2011년 시리아 사태로 인해 최초로 2만 명의 시리아 무슬림 난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난민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고 장기화 될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난민 사태가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ACTS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난민 사태 초창기에는 무슬림 땅에서도 교회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아이들 교육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2.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ACTS

난민 사태의 초창기에는 난민들이 안디옥 지역에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고, 지역사회에서 갈등도 많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만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점점 많아지는 난민들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도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을 돕는 일 즉 기본적인 문제인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교육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면서 무슬림 난민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되었고 아랍 교회가 개척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난민 상황이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ACTS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단순히 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난민 상황을 통해서 안디옥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 3. NACT의 시작

터키 각지의 아랍 시리아 난민 교회들을 조사하고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난민 사태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터키 각지의 아랍 난민 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2017년 10월 31일~11월 3일까지, 터키 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야 도시에 있는 안디옥 개신교회에서 제1회 터키 아랍 난민 그리스도인 컨퍼런스'를 'Great Na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었습니다. 컨퍼런스를 개최했던 이 지역은 터키 남부 하타이주 안타키야 도시로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최초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WM 선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모임에서는 터키 각지의 난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





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난민이 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함께하기로 하고, 어려운 난민의 형편이지만 교회 개척을 위한 헌금을 모아서 SWM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임 후에 SWM 선교회의 교회 개척운동과 협력하여 난민 교회개척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개척운동의 교회 개척자들을 중심으로 2019년 봄에 NACT가 결성되었습니다. 사무총장으로는 안디옥의 시리아인 A형제가 섬기고, 자문 위원으로는 시리아 출신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자신의 민족을 향한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로 재파송되어 나온 이스탄불의 R 목사님이 섬기고, 내외부 협력과 소통을 위한 코디로는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 4. NACT to New A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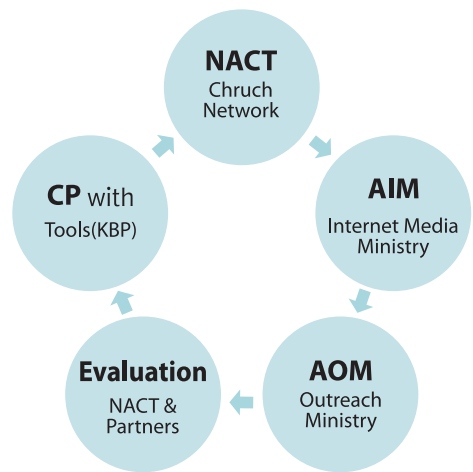
NACT의 목적은 터키 내에 시리아 이라크를 비롯한 아랍어권 교회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복음을 듣지 못한 아랍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되지 못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NACT는 인터넷 사역을 위한 AIM(Arabic internet-media Ministry)을 만들어 페이스북, 인스 그램, 구글을 통해서 아랍어 복음 광고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관심자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AOM(Arabic Outreach Ministry)를 결성해 시리아인, 이집트인, 아랍어 구사 가능한 터키인, 외국 사역자들이 팀을 이루어 AIM을 통해 연결된 영혼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문한 지역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그 지역에 교회 개척자를 파송하고, 파송할 때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도구들, 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학원, 카페, 중고물품)들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SWM, KBP (Kingdom Business Partners)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역을 해나가면서 자립 가능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다시 같은 모델로 다른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든 아랍 난민 및 아랍어권 무슬림이 있는 모든 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NACT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외부인 선교사들이 아닌 시리아인 이라크인 등을 비롯한 자국민, 자민족 선교사들입니다.

#### 5.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사역

현재 NACT에는 터키 내에 10개의 크고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NACT는 교단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신앙 노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NACT는 단체가 아닙니다. 구속하지 않고 구속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네트워크입니다. 자유롭고 느슨한 협력입니다. 오직 무슬림 난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성장하고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협력체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NACT (아랍교회연합)에 대해서 글을 쓰고 소개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제 새로운 발걸음을 떼는 새로운 사도행전 (New-ACTS)이기도 한 NACT (Network of Arabic Churches in Turkey)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IM사역(관심자 명단 작성)-  
AOM 팀 파송(정기 및 부정기 전략) -  
지역 방문 후 NACT 선교사 파송 -  
교회 개척 (비즈니스모델과 함께) -  
건강한 교회 - AIM 사역...(선순환)

**Letter from  
MissionField**  
선교지에서 온 편지

수산나 선교사 (2/2020)

번역: 금향로 편집부

# 말라티아 교회에서 온 편지

수산나 선교사는 2007년 말라티아에서  
순교한 탈만 선교사의 미망인입니다.



〈말라티아의 겨울〉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 40:31)

위의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지난 13년간 혼자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회에서는 리더십의 자리에서 섬겨오면서 제 안에 있는 자원이 고갈되었습니다.

지난해, 루카스와 함께 저는 지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제게 탈진 상태에 있기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권고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휴식과 치료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많은 외국인들 중, 세 가족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그들 중 두 명은 지역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이웃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불행히도 정부가 그들의 거주 허가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이웃 마을로 이사를 간 가족은 그곳에서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에 띄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이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우리와 합류하고 있습니다. 주 중에는 다양한 그룹과 개인이 성경공부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 예배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현재 두 개의 가정 그룹이 만들어졌고 청년과 여성 사역이 현지인에 의해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여러해 동안 “성경 코스(Bible Correspondence Course)”와 동역해왔습니다. 이 코스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최근에 이곳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더욱더 많고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기도해주시고 교회가 복음과 말씀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환영하고 잘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돌아온 후, 청각 장애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들과 만나지만 그들은 자체적으로 설교 시간이 있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들 중 한 분이 과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가족과 화해하고 공동체에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각 장애 크리스천들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터키 수화로 된 성경 이야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지난 1월 24일, 엘라지오/말라티아 지역에 강도 6.6도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했으며 많은 집들이 부서졌습니다. 친구들과 지인들 중 일부는 아파트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갔습니다. 아파트들이 사방에 금이 가 있어 조만간 부서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아파트 렌트비도 올랐습니다. 지진으로 고통받는 터키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지진의 여파로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이웃 마을의 크리스천들이 지진으로 피해 당한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등의 공적인 도움이 사라졌을 때, 교회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진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저희 가족들의 소식을 전합니다. 미칼은 영어 교사로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녀는 내년에도 교사로서 일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길 원하는지에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루카스는 뮌헨에서 일하며 공부할 수 있는 비싼 미니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가고 있고 두 명의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웹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루카스가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술을 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막내 미리암은 지센 외곽에 있는 아파트에서 세 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 (특별히 헬라어 단어들을 익히는 것에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일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미리암이 국가 지원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2월 말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전히 회복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2월 말과 3월 초에 병원 약속이 있어서 독일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3월 7일, 터키의 이즈미르에서 여성들을 위한 모임에서 강사로 초대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을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꼭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저는 예상치 않은 많은 사역들로 인해 오랜 시간 끝내지 못한 논문이 있는데 이를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수산나, 미칼, 루카스 그리고 미리암 드림

공행로가 가까이

## Anna's Prayer

안나의 골방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 성령과 하나 된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고 영을 먹어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라.

아침마다 QT와 기도를 했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침에 묵상한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주님과 대화하라.  
가능하다면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시간과 마음을 드려라.

주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라.  
당신이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주님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실 것이다.  
당신이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섬기고 가치있게 여긴다면  
주님 또한 당신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아가야 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맛보아야 한다.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화장실에서, 밥할 때도, 볼 일을 볼 때도, 차를 타고 다닐 때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찰나에, 그 시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당신의 영을 깨워라.  
우리 영은 그냥 방치하면 금방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  
생활의 염려,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영을 깨워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구하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이실 것이다.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상황이 열리는 대로, 약속이 생기는 대로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거역하고 반항해야 한다.  
시간의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야 한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왕노릇 하시도록 왕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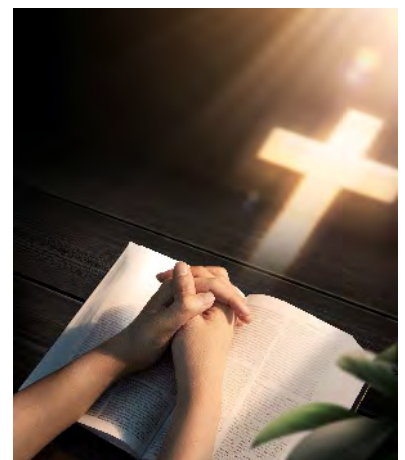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 때, 이 세상 신이 최후의 발악을 할 때,  
거룩한 아비·어미 세대와 거룩한 자녀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  
우리 어미들이 거룩한 자녀 세대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먼저 거룩하고 구별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대에 타협하지 않는  
극단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자녀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 자신을 구별시켜  
하나님의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통치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결단함으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서두르지 말아라.  
그분을 충분히 누리고 말씀하시도록,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머물러라.  
일과 사역과 사람을 섬기는 일로 인해  
주님과 함께 보내야만 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주님보다 더 바쁘게 사역한 사람이 있는가?  
그럼에도 주님은 한적한 곳에 나아가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다.  
말씀 앞에 머물러라. 말씀이 말씀하시도록 말씀을 붙잡아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도록 구해라. 지식적으로 우리가 아주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은 그런 자도 친히 가르치실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기에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에 적용하고 주님을 찾기에 서두르지 말고 말씀에서  
보배되신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발견되도록 충분히 기다려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해라.  
길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이 말씀하신대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들으면서 나 자신을 위해,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나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물으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기도해라.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노라면 무한한 감사가 어느새 내 마음에 넘쳐흐를 것이다.  
그분의 눈과 마주 대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또 사랑을 고백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그분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 시간이 마쳐졌다고 주님을 떠나보내지 말라  
또한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지 마라.  
그 상태 그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연습해라, 계속해서 연습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실 것이다.

지금이 그렇게 성령과 하나 된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부르짖어야 할 때이다.  
할렐루야!!!



## Special Column

### 특별기고

조지 배터슨 박사와  
에드워드 & 레이첼 워

번역: 손나래 (LA 연합교회)

# 비거주 선교사와 현지인 훈련

## 서문

비거주 선교사란 자신의 주요 사역과 관련된 선교 현장에 장기적으로 거주하지는 않지만 그 사역에 장기적으로 헌신한 선교사를 말한다. 교회 개척자들의 예를 들자면 이들의 장기적 헌신이란 지속적인 교회 개척 운동에 필요한 시기 동안 멘토의 역할을 하거나 섬기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설교를 하는 등의 단발적인 사역을 하거나 그리스도 중심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세워가지 않는 사역을 위해 다니는 이들을 비거주 선교사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특별히 현지인들을 훈련하는 일에 비거주 선교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전도지역은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장기 선교사가 일하던 방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거주 선교사는 특히 이중 직업을 가진 이들에게 주어지는 관공비자로 비교적 제약을 받지 않고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 드나들 수 있다. 대다수의 이러한 지역들에 이미 최소 몇명의 현지인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선교사가 이들을 훈련하여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미 현지 언어와 문화를 알고 있기에 현지인 신자들은 장기거주 선교사들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교회 개척을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지상대명령 수행을 놓고 현지인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비거주 선교사는 효과적이고 때로는 더 선호하는 선택지가 된다.

우리는 현재 비거주 선교사로 미국에 거주하며 4-6주마다 남미를 방문하며 매 방문마다 4-6주간 머문다. 2004년에 우리는 한 친구를 통해 샤르마(가명)를 소개받았다. 샤르마는 사역지에서 평화의 사람이며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2005년에는 현지인들 사이에서 가정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키기 원하는 요청에 샤르마를 멘토링하며 긴밀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 비거주 선교사역에 도움이 되는 지침들

1. 비거주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사역의 주체가 아님을 숙지해야만 한다. 사역은 현지인들이 주관하는 것이다. 비거주 선교사는 현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사역지를 방문할 수 있으며 초대 받지 않고서 현지 교회와 일해서는 안 된다. 비거주 선교사는 현지의 리더십의 권위 아래에서 사역해야만 한다.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은 멘토링과 훈련을 통하여 현지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돕는 것이다. 또한 반드시 현지인들이 요청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2. 비거주 선교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교회개척 운동이 자리잡히도록 돕는 것 같은 것이다. 분명한 목표가 없이는 비거주 선교사의 노력과 현지인들의 사역이나 혹은 사용된 방법들의 효율성을 측정할 수 없다.
3. 비거주 선교사는 기한을 정해놓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선교사가 발휘했던 어떤 리더십이건 적당한 시간 내에 반드시 현지인들에게 전수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자신은 사역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종 목표여야 한다. 초기에는 강도

높은 훈련과 멘토링이 요구되기에 현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현지인 리더십이 자라감에 따라서 비거주 선교사의 멘토링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비거주 선교사는 간헐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고 이메일과 전화로 현지인들의 요청에 답하는 단계로 비거주 선교사와 현지인들 간의 관계성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4. 비거주 선교사는 반드시 문화적 쟁점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비거주 선교사는 현지 문화의 일원이 아니기에 실질적이며 적절한 문화 이해도를 가져야만 한다. 특히 현지인들이 다세대에 걸친 신자여서 “비신자 문화”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현지인들을 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현지 신자들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중요한 발언을 할 때는 일어서야 한다고 배웠다. 하지만 현지의 문화에서는 중요한 것을 이야기 할 때는 앉아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 자세일 수도 있다. “기독교관”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문화적으로 더 적절한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문화 훈련을 받게 되면 이러한 쟁점들이 명백하게 보이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비거주 선교사가 문화적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믿을 만한 현지인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5. 비거주 선교사의 단기체류적 속성상 반드시 현지어를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용어를 사용하거나 선교사의 언어와 현지어에 모두 능통한 현지 통역사가 필요하다. 비거주 선교사는 한정된 목표와 특정 관심사에 집중되어 있기에 언어를 배우는 일은 이차적 문제이다.

6. 비거주 선교사의 일은 리더십과 동역하는 것이기에 일반 신자들과도 반드시 함께 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지 리더십은 반드시 자신들이 현지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려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를 배가하겠다는 분명한 비전이 없으면 비거주 선교사가 쏟는 노력들은 미미한 영향력을 미칠 뿐이다. 선교사와 동역하는 리더십에서 “평화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비거주 선교사는 이들과 함께 교회개혁 운동을 더욱 왕성히 펼칠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 이러한 평화의 사람을 소개받아 그의 비전을 다듬고 명확히 하는 일을 돕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짜는 일을 함께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7. 보고체계가 반드시 자리잡혀야 비거주 선교사가 실제로 진행되는 일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일은 특정한 업무와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기본적인 진행 도표를 사용하여 신앙성경에 언급된 교회들이 해야 할 사역들과 지역 코디네이터와 교회개혁자들의 주요 활동들을 나열해 놓는다. 예를 들면 우리의 경우 현지 리더십이 “역방향” 계획 세우기를 도왔다. 확정된 특정 목표 대상과 5년내에 세워질 가정 교회들의 숫자를 계획에 넣었다. 그 후 한 걸음 물러서서 연단위의 중기 목표를 분석하고 분기별 목표로 세분화했다. 우리는 특정 영역의 성장과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진행 도표를 만들었다. 비거주 선교사는 질적, 양적 측정을 위하여 적절한 보고체계

를 갖추어야 한다.

8. 현지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히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관계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비거주 선교사가 현지에 있을 때는 대형 그룹을 훈련시키는 미팅이 필요하고 좀 더 작은 그룹을 멘토링하며 현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평범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일이 종종 가장 큰 결실을 맺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지에 있을 때는 현지인들과 그저 함께 있는 - 일상을 살아가는 데-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다. 이것은 교회란 무엇이며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바로 끈끈한 관계성을 쌓아가는 시간인 것이다. 비거주 선교사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현지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함께 보낸 시간들은 비거주 선교사가 현지에 있지 않을 때도 관계를 깊게하며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다.

## 비거주 선교사역의 이점들

1. 비거주 선교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현지에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사역과 리더십을 즉시 맡을 수 있기를 장려한다. 비거주 선교사는 일반적인 사역이나 일반 성도들을 지도하기 위해 현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은 현재 리더십이 어떤 수준에 있건 그들을 양육하고 자리 잡도록 도우며 이들이 리더로서 성장하고 다른 현지 리더들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런 선교 모델은 외국인 선교사가 현지인 리더들에게 리더십을 이전할 때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피해갈 수 있다.
2. 비거주 선교사는 실제로 사역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다. 사역자들이 특정한 업무들을 계획하고 기대치를 정의하고 나면 일의 성취도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비거주 선교사는 사역지의 일에 깊이 관여한 것이 아니기에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는 고국에 돌아오면 한 걸음 물러선 상태에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현지에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전히 현지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3. 현지에서 보내는 시간의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 현지인들은 비거주 선교사가 현지에서 제한된 시간 동안만 거주한다는 것을 알기에 선교사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일정을 짠다.
4. 비용이 절감된다. 일년에 몇 차례나 왕복 비행을 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지만 거주 선교사의 생활비용과 비교하면 보통은 더 적은 비용이 든다.



## 비거주 선교사역의 잠재적 우려들

1. 새로운 현지 사역자들이 세워지면 사역의 집중도가 낮아지고 관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거주 선교사가 현지에서 항상 거주하는 것은 아니기에 사역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휴대 전화와 인터넷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었다. 해외로 전화를 거는 일이 현지인들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에 비거주 선교사가 이런 영역에서 선조취를 취해야 한다.
2. 때로는 선교사들이 현지의 상황에 충분히 관여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이는 비거주 선교사가 자신은 항상 선교지에 단기간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 때 종종 벌어지는 실수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들은 사역지에서 인기있는 스포츠인 크리켓 경기에 대해 배우기를 자청하였다. 동료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경기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일은 서로의 차이를 뛰어넘어 - 가장 극단적인 차이들 조차도 -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경험들” 가운데 하나이기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05년 샤르마와 관계를 맺은 이후 우리들은 그가 가정교회 리더에서 현재 사역지의 선교회 사역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들과의 관계와 멘토링을 통해 그는 우리에게 훈련을 요청하는 대신 자신의 민족들을 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왔다. 우리는 계속해서 샤르마와 긴밀히 동역하고 있으며 조정과 수정이 필요한 영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이 사역지가 가정교회 개척 운동의 시작점에 있다고 믿는다. 2012년 까지는 “사역에서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Source: [http://www.globalmissiology.org/english/docs\\_html/featured/non\\_resident\\_missionary.htm](http://www.globalmissiology.org/english/docs_html/featured/non_resident_missionary.htm)>

## Mission Frontiers 미션프론티어스

매튜 엘리슨과 데니 스피터  
번역: 손나래 (LA 연합교회)

# 지상대명령에 대한 대혼란

매튜 엘리슨은 Sixteen:Fifteen의 대표이며 데니 스피터는 Church Partnership at Pioneer의 부대표이자 When Everything Is Missions의 공동 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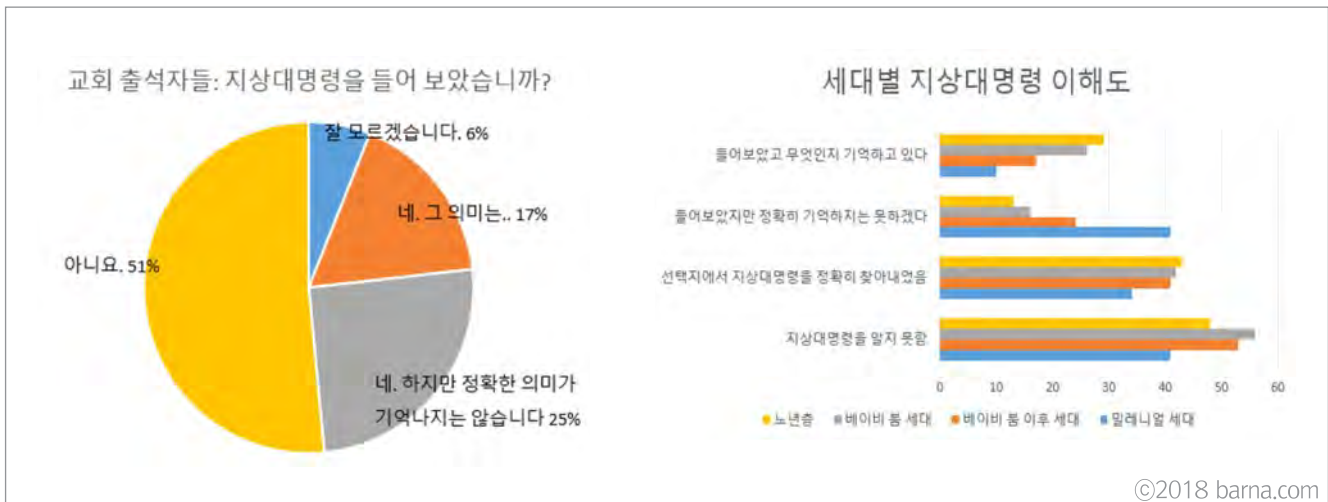
2017년 3월에 있었던 바나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증거들로 인하여 교회가 지상대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우리의 우려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미의 51% 기독교인들은 지상대명령이라는 용어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상대명령을 알고 있다고 대답한 49%의 응답자들 중 (다섯 개의 성경구절이 주어졌고 그 중 하나는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이었음) 37%만이 어떤 구절이 지상대명령인지 바르게 응답하였다는 것이다!

본고에 제시한 그래프는 교회들의 성경 문맹률의 심각성을 나타낸 것이며 이는 심각한 경종을 울릴뿐만 아니라 복음이 중심이 된, 제자를 삼는 선교의 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었는지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지상대명령으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18-20에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 민족국가 (인도나 중국같은)를 생각하지 말고 언어와 문화가 구별되는 민족 그룹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대명령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며 심지어 제자를 삼는 일도 아니다. 이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다. 지상대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아니며 단순히 그분의 이름으로 선과 자비를 행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복음을 심는 것이다.

선교는 역사적으로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가 간 혹은 탈 문화적으로 행해진 사역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 내에서 선교는 우리 공동체와 문화 내에서 일어나는 아웃리치 사역까지 포함하게 되었고 그 속성상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교가 광범위한 정의를 가지게 됨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선하고 이타적이거나 전도에 관한 일은 모두 선교라고 봐야 한다는 철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선한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모든 일을 선교로 칭하는 것이 예상치 못했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 것



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이든 교회의 선교가 될 수 있을까? 스테판 네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선교가 모든 것이라면, 선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선교’의 범주에 넣는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일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한 교회의 특정 책임에 관한 용어를 찾아내야만 할 것이다.”

## 모든 사람이 선교사이며 모든 일이 선교라고 부르는 것의 잠재적 가능성과 위험

서구 사회는 빠르게 탈 기독교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국내 선교란 무엇인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시한다. 유럽과 북미는 점점 더 선교지와 같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지 같아 보인다.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전도라는 용어는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의 잔재로 인식된다. 그때는 일반적인 성경적 세계관이 사회에 널리 퍼져있어서 길거리 전도와 대규모 집회가 큰 역할을 하며 진정한 회심을 가능하게 했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서 선교적 참여와 총체적 복음전도를 요구하고 있기에 (전도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선교적이라는 용어가 부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생각은 좋은 발전이면서도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 데이비드 마티스<sup>9)</sup>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과 모든 기독교인들을 선교사로 칭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미전도종족 전도를 최우선으로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선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선교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신약성경의 선교에 관하여 세계적인 전문가로 손꼽히는 에크하르트 슈나벨은 사도 바울의 선교에 관하여 50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와 초대 기독교인들의 선교에 관하여 각 1000페이지 분량의 책 두 권을 저술했다. 그는 확고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교라는 용어가 신약성경에 없다는 주장은 틀렸습니다. 라틴어 동사 mittere는 그리스어 동사 apostellein에 해당하는데 이는 신약에서 136번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는 97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것과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에 의하여 ‘보냄을 받은’ 것에 모두 사용된다)<sup>9)</sup>.

### 슈나벨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다음을 자세히 살펴보자.

1. Missio Dei 는 “mission of God (하나님의 미션)”으로 번역되며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과 그분의 목적, 즉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 46:10)





2. Mission은 세속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근본 목적 (강령이나 선언문을 뜻하는 “mission statement”에 사용되듯) 혹은 특정 작전이나 목표 (군사 혹은 외교사절을 뜻하는 “military or diplomatic mission”에서 쓰이듯)를 칭하기 위해 사용되곤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missio Dei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 교회에 주신 모든 것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교회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포함한다.
3. Missional은 네 가지 용어 중에서 (1-4에서 언급된 missio Dei, mission, missional, missions 중) 가장 최근에 생겨난 단어로써 (교회 내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과는 대조적으로) 교회의 지경을 넘어서서 행해지는 사역을 따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치사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전에 mission이나 miss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던 맥락에서 현재는 missional을 쓰고 있다. 또한 이 용어는 의도적으로 아웃리치에 집중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를 뜻하는 missional church 혹은 선교적 공동체를 뜻하는 missional community에 쓰이듯)의 특유의 진취적인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어 왔다.
4. Missions는 아마 본고에서 언급한 네 가지 용어들 (Missio Dei, Mission, Missional, Missions) 중 어느 것보다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투박하거나 고어체로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영국에 거주하는 형제, 자매들은 의미를 굳이 전환하지 않고 아마도 조금 더 고상한 용어인 “mission”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missions 또한 특정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이는 문화, 종교, 인종, 지리적 장벽을 넘어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삼는 교회의 사역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교학자 개리 코윈은 그의 글 MissionS에서 왜 ‘S’가 여전히 중요한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은 곳의 사람들과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일은 지난 몇십 년간 frontier missions(프론티어 미션)의 모든 것으로 구별되어 왔습니다.”<sup>39)</sup> 코윈의 말에 따르면 서로 중복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용어들은 중요하고도 특별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각 용어들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문제는 각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각각의 강조점들이 사라질 때이다. “예를 들면, missio Dei와 mission이 동의어라고 말하거나 개인은 교회의 mission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모든 일이 선교라고 정의 내리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sup>40)</sup>

우리는 교회가 계속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하게 될 지상대명령에 집중된 좁은 의미의 missions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missions의 정의를 좁게 유지하는 일은 교회의 mission을 이루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며 성경 전체가 이러한 강조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Missions에서 요구하는 장벽을 넘기 위해서 우리들은 교회 안의 특별한 관심사와 강조점을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제자 삼기로 환기시켜야 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을 주기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지역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한 아웃리치가 자연히 항상 최우선 순위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목소리는 다음 “Missions Sunday”가 될 때까지는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을 것이다.



**교회출석자들은 다음 구절들 중 지상대명령에 관련된 구절을 찾아낼 수 있는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 22:37-40)	1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8%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막 8:34)	5%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라 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막 12:17)	2%
제시된 구절 중 지상대명령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음	33%

©2018 barna.com

**단지 의미론적 문제에 불과한가?**

지상대명령의 의미에 관해 교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로 혼란스러워하는가? 수백개의 교회들과 일해 온 우리들의 경험은 BARNa 보고서에서 제시된 증거들과도 일치하며 매우 큰 혼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과 일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와 missions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당신의 교회 리더들, 선교 (mission)에 마음이 있는 자들, 세계선교(missions)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상대명령에 관해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물어보는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해본다면 서로 다르고 상반된 대답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때로는 차이점들이 그저 의미론적 문제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근본적인 차이점일 것이다.

세계선교를 지도하고 상담하는 우리의 사역 속에서 지상대명령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교회와 세계선교 지도자들 간에 심각한 수준의 혼동과 숨 막히는 의견 충돌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질문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질문하게 될 것들 중 일부이다.



-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주신 지상대명령의 목적은 무엇인가?
-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라고 부르셨나?
- 지상대명령의 목적은 무엇인가?
-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 지상대명령의 성취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위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 사람들이 지상대명령을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지상대명령의 목적을 명확하고도 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 목적을 잘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missions의 견고한 성경적 정의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날과 같이 상대적이고 다원적인 시대에 missions를 바르게 정의하려면 우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부족과 방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함께 경배함으로써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적 사명의 길을 걷기로 헌신해야 한다.

### 각주

1. David Matthis is the Executive Editor for [desiringGod.org](http://desiringGod.org) and a pastor at Cities Church in Minneapolis/St. Paul.
2. Eckhard J. Schnabel, *Paul the Missionary: Realities, Strategies, and Methods*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8), 27-28
3. Gary Corwin, "MissionS: Why the "S" Is Still Important," *EMQ* 53:2 (April 2017), <https://emqonline.com/node/3643>
4. Ibid.

<Source: <http://www.missionfrontiers.org/issue/article/the-great-confusion>>



금항로가 차기까지

## Turkey News

터키는 지금

데이비드 D. 키르크패트릭

(12/10/2019)

번역: 한국 번역팀

# 에르도안, 리비아 통치를 위한 라이벌로 터키도 뛰어들 것을 시사



6월 칼리파 히프트군과의 전투 중 최전방 국가 협약 정부에 충성하는 전사들  
Mahmud Turkia/Agence France-Presse - 게티 이미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에 대항하기 위해 리비아에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터키가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근접해 있는 러시아의 지원 세력을 막기 위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밝힘에 따라 리비아를 통제하기 위한 전투는 이번 주에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 TV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리폴리에 본부를 둔 유엔 공인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터키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러한 요청의 경우, 터키가 어떤 계획으로 나아가게 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인 파견” 또는 “우리 병력”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상업적, 정치적 이유로 궁지에 몰린 트리폴리 정부의 마지막 중요한 후원자로 떠올랐다. 새로운 군사 개입에 대한 그의 직설적인 발언은 민병대 지도자 칼리파 히프트를 지원하는 러시아군의 강력한 포위에 둘러싸여 있는 트리폴리 정부가 직면한 상황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트리폴리의 국가 협정의 정부 관계자들은 그들이 그 임무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어떠한 지원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G.NA는 모든 국제적 지원을 환영한다”라고 트리폴리 정부의 미국 문제 고문인 모하메드 알리 압둘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했다.

리비아는 광대한 석유 매장량과 긴 지중해 해안선을 가진 전략적 요충지이다.

아랍의 봄 사태 동안, NATO의 개입이 무아마르 알 카다피를 실각시키는 데 도움을 준 이후, 8년이 지났고 리비아는 혼란 가운데 빠져있다. 이 소요사태로 인해 해변은 수만 명의 이주민이 유럽으로 향하게 만드는 출발지가 되었고, 사막은 무장 극단주의자들이 머무는 은신처로 바뀌었다.



레셉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파예즈 알-사라즈 리비아 총리 (왼쪽에서 세번째)가 지난달 이스탄불에서 만났다. 터키 대통령 언론국

지난 3개월 동안 러시아는 점점 더 많은 수의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끓어오르고 있던 리비아의 내전을 어느 정도 변화시켰고, 히프터가 수도를 점령하도록 도왔다.

76세의 히프터는 5년 이상 트리폴리를 차지하기 위해 단발성의 전투들을 벌여 왔으나 아무런 성공도 거두지 못했다. 최근의 공격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작되었지만 그의 군대는 도시의 남쪽 외곽에서 5개월 이상 교착 상태에 빠져있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의 강력한 지원으로 히프터 부대는 그 도시로 다시 진격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주말, 그들은 몇 달 만에 살라 엘딘 지역을 대부분 점령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구의 학자인 프레데릭 웨레이는 최근 전선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했다. “모멘텀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도시 방위군들 사이에 피로한 기색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만약 사기가 꺾인다면,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포기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정부가 붕괴되면, 히프터에 대항하여 지역 폭동이 일어나 도시 내부에서 피비린내 나는 격전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외 이주자들의 피난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웨레이는 미국을 향해 이미 시리아에서와 같이 러시아군이 리비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중동에 남아 있는 미국의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리비아에서 대부분 철수했고 유럽 강대국들은 리비아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2011년 NATO의 개입 후, 미국이 철수하기 시작한 이후, 모든 서방의 무장한 미국 파트너들은 서로 싸우는 나라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면서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객을





지원해나갔다. 그러면서 지역 강대국들의 공백을 메웠다. 히프터의 권위주의적 스타일이 안정을 되찾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랍 에미리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는 히프터의 뒤에 줄을 섰다.

터키는 부분적으로 지역 냉전에서 아랍 에미리트-이집트-사우디 블록과의 경쟁 때문에 트리폴리 정부의 유일한 중요한 군사 지원국이 되었다.

다른 서방 강대국들과 함께 미국은 트리폴리 정부와 유엔이 후원하는 통일 정부에 대한 평화 절차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터키만이 군사적 지원을 해왔다.

워싱턴은 실제로 엇갈린 신호를 보냈다.

리비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용병뿐만 아니라 제복을 입은 군대를 포함한다고 말하는 미국 관리들은 그들의 주둔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다"라고 말하며 "민간인들 사이에서 대규모 사상자의 망령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리비아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빅토리아 코츠 국장은 2주 전 히프터 장관을 만나 평화 회담을 논의하며 백악관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인정을 받았다.

히프터가 진격을 시작하자 4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트리폴리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며칠 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칭찬하기 위해 히프터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주, 미군 관계자들은 리비아에 설치된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미국의 감시 드론을 격추시킨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 아프리카 사령부 소장인 스티븐 J. 타운센드 장군은 24일 성명을 통해 무인기를 격추시킨 세력은 무인기가 미국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밝혔다. 무장한 드론이 공중에서 격추 당하면서 트리폴리 가장자리에 있는 소수의 무인 지구에서 한때 훈련받지 않은 수백 명의 군인들이 충돌했다. 히프터 부대는 아랍에미리트(UAE)가 보급한 중국산 드론을 띄웠고 트리폴리 부대는 덜 강력한 터키 기종으로 반격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러시아군이 2019년 가을 일찍 도착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10월까지 무려 200명의 러시아 용병들이 도착했고, 몇 주 안에 그 수는 천 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들은 훈련된 저격수들 뿐만 아니라 더 발전된 공군력, 지상군에 대한 공중 지원, 유도 미사일들을 가지고 왔다.

그들의 도움으로, 히프터의 군대는 이제 공중을 통제하고 있다. 트리폴리 정부의 터키 무인기는 하늘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아마 히프터의 동맹군들에 의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을 것이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리비아 학자 울프람 라히는 "트리폴리군은 지금 공중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두 새 터키 장비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했다.



10월 트리폴리 남부 외곽에서 공습 후 주택이 잔해. Ismail Zitouny/reuters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년간 그 지역의 분쟁을 피하는 것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그의 리비아 개입 발언은 두 달 전 터키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족 주도의 민병대에 대항하여 시리아 북부로 침입한 후, 터키군이 리비아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군과 타협을 한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히프터를 "무법자"라고 부르며, "히프터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새로운 시리아를 탄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도 히프터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검토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리비아의 안정보다 더 많은 위협을 주고 있다.

그의 발언은 터키에게 지중해의 확장된 부분에 대한 시추, 파이프라인 및 기타 해양권을 주는 계약을 트리폴리 정부와 터키 정부가 체결한 후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다. 이는 그리스와 유럽으로부터 분노를 촉발시켰지만 터키에 트리폴리 정부의 새로운 금융 지원을 안겨주었다.

대통령 성명서에서 라히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터키 대통령의 진술은 이 협정이 터키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히프터가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기꺼이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출처: <https://www.nytimes.com/2019/12/10/world/middleeast/turkey-libya-russia.html>>



금항로가 차기까지

## Middle East News

중동지역의 오늘

칼레드 아부 토아메

(12/18/2019)

번역: 한국 번역팀

# 하마스, 32년 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이스라엘 제거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한 주 동안의 최근 회의에서 보낸 한 가지 메시지는 터키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의제와 이념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 사진: 2018년 5월 18일 터키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깃발이 그려진 스카프를 두른 반 이스라엘 집회에서 에르도안 대통령. (게티 이미지 사진)

이번 주 팔레스타인 하마스 운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파괴라는 주요 목표를 상기시키며 하마스 운동의 32주년을 기념했다. 이 메시지는 하마스가 1988년에 처음 발표한 헌장을 바꾸지 않았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 그것은 또한 하마스가 비 폭력적인 팔레스타인 파벌로 변모했다고 착각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슬람 저항운동의 규약으로도 알려진 이 헌장은 하마스의 "유대인에 대한 투쟁은 매우 위대하고 매우 진지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이슬람 국가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헌장에는 "지하드(성전)를 통한 것 외에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적혀 있다. "조약, 제안, 국제회의는 모두 시간 낭비, 헛된 노력이다. 팔레스타인의 어느 한 부분을 철회한다는 것은 [이슬람의] 종교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32년이 지난 지금,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특히 이스라엘을 이슬람 국가로 대체하려는 열망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그들의 언약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하마스는 진의에 대해 솔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마스의 창설 기념일을 기념하는 성명에서, 그 운동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말을 흐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즈 앳딘 알-카삼 하마스 창설자 중 한 명인 이브라힘 아주리는 하마스에 소속된 팔레스타인 정보 센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마스과 군부는 팔레스타인 해방 때까지 정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해방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몇 년 동안, 신은 기꺼이, 알-아크사 모스크(황금돔성전) 예루살렘을

수상 기자 칼레드 아부 토아메는 예루살렘에 본부를 둔 게이트 스톤 연구소의 실면 저널리즘 회원이다.



점령했고, 모든 팔레스타인이 해방될 것이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큰 승리가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는 좀 더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의 모든 해방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을 파괴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고 말할 때, 그들은 자살 폭탄과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리즘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들이 하마스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믿는 유일한 수단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존재권을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 운동이 현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팔레스타인의 땅은 대대로 그리고 부활의 날까지 이슬람의 와크프 (재산, 소유)였다. 누구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의 일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

하마스의 여러 지도자들이 이번 주에 발표한 성명은 그들의 현장의 내용과 동일하다. 하마스가 세워진지 32년 만에 나온 이 성명은 이 운동의 극단적이고 위험한 이념을 재확인시켜 준다.

가자지구의 또 다른 고위 하마스 관리인 오사마 알 마지니는 "하마스는 국민들과 원칙에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 비겁한 적은 힘과 화약의 언어만 이해한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떠나라"고 촉구하고 하마스가 수천 명의 자살 폭탄 테러범을 준비시켜 유대인들을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추방할 것을 경고했다.

하마스의 정치국 부위원장인 무사 아부 마르주크는 이스라엘을 '시온주의 프로젝트'라고 묘사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해방시키기 위해 시오니즘 프로젝트에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아부 마르주크의 진술은 그 역시 하마스의 현장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장에는 "하마스는 지하드의 사슬에서 시온주의 침략에 맞서는 연결고리 중 하나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을 끌어 모았던 가자지구 하마스 기념행사는 이집트와 카타르, 유엔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장기 휴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일치했다. 이 기념일은 또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통령직과 팔레스타인 입법회의인 팔레스타인 의회를 위한 새로운 선거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가자지구에서 열린 친 하마스 집회의 많은 참석율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운동의 인기를 나타낸다. 하마스의 집회에 참석한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전멸에 관한 이 운동의 원칙과 이념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들 역시 무력과 테러만이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들 역시 요르단 강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전체의 해방"에 찬성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제 하마스는 분명히 변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파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다시 상기시켰기 때문에, 문제는 다음과 같다. 왜 일부 세계 지도자들과 정부 그리고 단체들은 그 운동의 지도자들을 계속 포용하고 있는 것일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일주일 동안 레젯 타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와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만남이 팔레스타인과 나머지 아랍인과 이슬람교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에르도안과 하니예의 만남이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 터키는 하마스를 지지하고 그들의 의제와 이념을 지지한다.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회담 후 하마스 지도자가 터키의 팔레스타인 지원을 높이 평가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지난 며칠간 하마스의 독살스러운 반 이스라엘 성명에 비추어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할 것이다. 유엔은 왜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려 하는가?

하마스가 이스라엘 파괴에 전념하고 있는 한 계획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마스에게 압력을 가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마스의 참가를 촉구하는 대신 유엔이 하마스에게 현장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파괴를 촉구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의회 선거에서 하마스가 무조건 출마할 수 있도록 해 피해를 입혔다. 불행하게도 국제사회는 하마스가 폭력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존 재권을 인정하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된 모든 협정을 그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마스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 후, 하마스의 지도자들은 영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바로 그 오슬로 협정의 우산 아래 선거에 출마했다. 다시 말해, 하마스는 거부했던 오슬로 협약을 팔레스타인 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국제사회가 하마스의 선거 참가를 허용한 처참한 결정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 하마스의 진정한 정책과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 하마스는 그것을 분명히 한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나머지 국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며칠 동안 하마스의 지도자들의 발언을 듣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모든 팔레스타인의 영토 밖으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이슬람 국가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그 어느 때보다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32년 동안 듣고 있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마스를 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단주의 이념을 정당화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임무를 용이하게 할 뿐인데, 이번에는 유엔, EU와 다른 국제 정당들이 지지하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출처: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5306/hamas-thirty-two-years-later>>

## 시리아에 희망의 빛 다시 불 붙여



지난 10년 동안, 시리아의 크리스천 아이들은 정신적 충격, 전쟁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시리아 아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픈 도어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교회의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있는 베라와 나는 어린이 축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축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베라는 “더 앞 쪽에 있어”라고 말하며 콘크리트 파편이 있는 그곳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그곳은 한 때 건물이 있었다.

다마스쿠스인 이 지역은 최근까지 다소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다. 다마스쿠스 동부 교외 지역은 2011년부터 반군에 의해 장악되어 왔으며,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정기적으로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기독교 지역은 카사이다.

이 지역에 있는 한 크리스천은 “전쟁 전에는 이 발코니들에 모두 크리스마스 전등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야간에 불빛이 포착되어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해 건물들의 불이 꺼지고 어두워졌다.

또 다른 프로그램 기획자인 누르는 “이곳을 운전할 때는 다른 차와 부딪치는 것이 두려워 고속으로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도시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위험 때문에 축구장에서 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베라는 지난 여름 이후, 정부가 이 지역을 새롭게 보수하고 임대하게 되어 카사아 연합 교회가 모든 크리스천 교파의 아이들을 위한 소망 센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모든 시멘트 뒤에 방치되어 있던 곳은 인공 잔디를 깔아 사용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베라와 그 팀은 전쟁으로 인해 아이들이 밖에서 놀 수 있었고 고립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베라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우리는 아이들이 밖에서 조금 더 긴장을 풀고 놀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축구 프로그램에는 500명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교파에 속한 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이들이 들뜬



마련한 축구장에서 달릴 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떠한 불안한 기색도 없는 것 같아 보였다.

12세인 왈리드는 “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친구들과 밖에서 놀 수 없었어요”라고 외쳤다. 그의 친구인 사미르도 왈리드처럼 말했다.

14세인 새라는 친구들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곳에 함께 있던 아이들은 밖에서 자유롭게 놀며 즐거움과 흥분 가운데 있었다.

새라는 “이전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었어요”라고 말했다.



## 시리아를 위한 소망의 장소

어린이들의 활동, 음식 배급, 영어 수업, 청소년 활동, 알파 과정, 결혼 과정,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제자훈련, 여성 회의, 축구 경기 등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시리아 소망 센터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4월 말까지 오픈 도어스는 시리아 전역의 16개 센터를 지원하는 것을 도와왔다.

시리아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크리스천들을 지원하는 전략들 중 하나이다.

이 센터의 업무를 조정하는 직원 중 한 명인 시몬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교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교회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들은 소망의 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소망의 센터들은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르기에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학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방과 후 종교 지도, 직업 훈련, 스포츠 클럽 등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다.



시리아의 아이들의 주변 놀이 환경이 달라졌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시작한다. 제공해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바꿀 수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항상 있다. 바로 “예수의 소망”이다.

최근에 사피타에 있는 센터를 무사 목사가 운영하고 있다. 무사 목사는 소망센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회는 사회의 한복판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들을 해나가고 있기에, 정부는 여름방학 동안 어린이들의 활동을 위해 교회가 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지역사회도 이를 수용해주었습니다.”

소망센터는 목사와 그의 팀의 사역에 중요한 사역이다. 소망센터는 타르투스과 사피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교회는 10곳에서 사피타와 타르투스의 275가구를 포함해 1,000여 가구에 음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들 중에는 무슬림 가족도 있다. 무사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가장을 잃은 가족들을 우선적으로 돕습니다. 사피타와 타르투스의 275가구 중 절반 가량의 과부들이 가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의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가 운영하는 다마스쿠스의 또 다른 소망 센터가 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 그는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했다.

지난 10년 동안 시리아는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 당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이곳에 소망의 센터가 세워져 예수 안에서 안정과 희망의 장소를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출처: <https://www.opendoorsusa.org/christian-persecution/stories/rekindling-the-light-of-hope-in-syria/>>







## Unfinished Task

# 400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s)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400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s)을 위한 연합 기도운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GPD(Global Prayer Digest)와 조수아 프로젝트(Joshua Project)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미전도 종족, 400종족을 선정하여 400일간 매일 한 종족을 소개하면서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운동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SWM선교회에서는 400개의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의 파트너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말까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세계 한인디아스포라 기도네트워크를 통해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제목을 알리며 연합기도운동을 진행합니다.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에 참여하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날까지, 땅끝까지, 400개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우리의 연합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은 다음과 같이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 기간 2019년 10월 1일 ~ 2020년 10월 31일
- '400 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운동' 책자를 받아보시고 매일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시고 (연합기도 운동 책자를 구입하기 원하시는 교회나 개인 기도자는 SWM 선교회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400미전도 종족을 위한 연합기도' 홈페이지 (<http://globalupm.net/gpd/>)를 방문하셔서, 매일 한 종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시고.



<http://globalupm.net/gpd/>

관련문의 (미국): 허창도 간사 (714.999.8639)  
관련문의 (한국): 임동혁 간사 (010.8632.0278)



 SILK WAVE MISSION  
www.silkwavemission.com

## 킹덤사역 후원안내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해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난민사역, 킹덤사역**에  
동참해주세요.

### 미국후원안내

#### 보내는 방법

Pay to the order of : **Silk Wave Mission**

수표를 적으실 때 MEMO에 헌금 목적을 기록해주세요.  
(예) SWM 특별헌금

주 소: **Silk Wave Mission**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연락처: **이은옥 간사 (714.999.8639)**

### 한국후원안내

#### 보내는 방법

하나은행 150-910056-07504 (예금주: SWM Korea)

연락처: **임동혁 간사 (010.2100.4237)**



터키와 이슬람권을 위한

# 현지교회 개척운동

CHURCH PLANTING MOVEMENT

교회개척

운동

CHURCH  
PLANTING  
MOVEMENT

## 터키와 이슬람권에 수 많은 교회가 개척되고 있습니다

(100개 이상 교회 개척 프로젝트)

### CPM (Church Planting Movement) 비전선언문

터키와 이집트, 쿠르디스탄 그리고 중동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시리아, 이란, 이라크, 아프간 난민들 가운데 건강하고 재생산적이며  
자립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대추수를 보기 원한다

## 하나님께서 추수밭을 준비하시고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개척기금 (Church Planting Funds)을 통해 동역자님과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 여러분은 기도와 재정으로 교회개척운동에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 돕는 재정(월 \$500) 가운데 매월 한 구좌 \$50 혹은 여러구좌 지원을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미국: Pay to the order of: Church Planting Funds

연락처: 강우석 간사 (714.999.8639)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한국: 하나은행 150-910059-03404 (예금주: SWM Korea)

연락처: 임동혁 간사 (010.2100.4237)

교회개척자  
한 가정 돕는 재정

**\$500**  
/월

한 구좌로  
참여하는 방법

**\$50**  
/월



SILK WAVE MISSION

www.silkwavemission.com